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성혜진 비서관 (이용우 국회의원실)	연락처	010-9058-0581 (lywchosim@naver.com)
----	------------------------	-----	--

민주당-항공연대협의회 정책 협약 체결,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으로 노동3권 보장해야”

- 5월 30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민주, “특수한 환경이라는 이유로 권리 보장 못하는 부분 개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항공·공항 분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지선언 및 협약식에는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의 김주영 본부장, 김영훈 본부장, 이용우 부분부장, 신동호 노동희망실천단장 등이 참석했다.

항공연대협의회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 등 총 6개 조합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6일 체결된 노동본부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의 협약에 이어 모든 항공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정책협약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간산업 국가관리 강화 ▲이용자와 노동자가 안전한 공항 만들기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노동자 참여 구조 확대 ▲양대 항공사 합병 프로세스 관리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송민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지부장은 “항공 관련 업종이 국제선 기준 80% 정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여있다”라며 “법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라고 해놓고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어놓은 뒤 관리감독이나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정근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사무국장은 “권수정(항공연대협의회 의장·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의 연차가 반려되어 대리 참석했다”며 항공승무원의 자유롭지 못한 연차 사용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도 연차를 못 쓰고 아버지 임종이 가까워도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토로했다.

김주영 노동본부 본부장은 “필수공익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교섭 진행이 어려울 때는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도 고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훈 노동본부 본부장은 “에센셜 서비스와 미니멈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니멈 서비스를 에센셜 서비스라고 해서 항공산업까지 확장한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 중단으로 공공의 생명과 안전이 현저히 위태로울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노동본부 부본부장은 “공항 근무 노동자는 일반적인 사업장 노동자들과 달리 제약된 조건 하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특수한 환경이라는 이유로 권리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공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끝)

[붙임 1. 정책협약서] [붙임 2. 협약식 현장사진]

붙임 1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협약서

- 항공·공항 분야 노동자 -

‘항공연대협의회’와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항공·공항 산업에서 공공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노력한다.

1. (기간산업 국가관리 강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공항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안전 정비와 사고 예방책 및 현장의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이용자와 노동자가 안전한 공항 만들기) 공항 이용객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 지상조업·정비 인력·객실안전승무원 등 부문별로 기준이 되는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3.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현재 항공·공항 분야에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 건강권, 고용 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항공·공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여 평등한 노사관계를 이루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노동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현행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4. (노동자 참여 구조 확대) 항공·공항 노동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지침에 대한 현장 수용력과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융합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장 노동자의 참여 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양대 항공사 합병 프로세스) 대한항공-아시아나 양대 항공사의 합병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5. 5. 30.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

의장 권수정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주영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

